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⑰ -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

알음알이 내려놓고 선문에 들라

"이렇고!"
"네? 여보세요. 불식선원 맞죠?"
"이렇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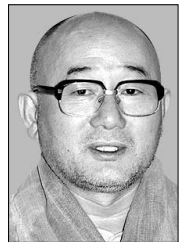
취재 일정 확인 차, 걸었던 휴대폰에서 들려온 외마디였다. '생동맛은' 대담에 순간 당황했다.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곱씹었다. "여보세요" 하고 물으니, 들아온 답이 '이렇고'라. 이거 뭐지?
선원에 들어서자마자, 선원장 본적 스님에게 곧장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불식(不識)!"

사랑방이 따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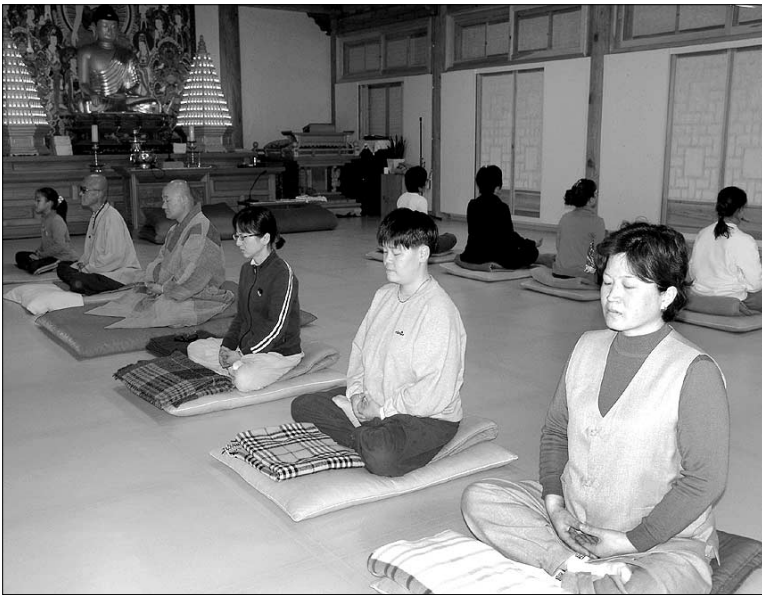
11월 5일 오후 7시. 토요일아침전에 앞서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의 선종을 묻자, 본적 스님은 "그런 거 없다"며 미소 짓기만 했다. 잠시 후 다시 물으니, 내놓는 대답은 맥을 풀리게 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거지, 그 뿐이야."
지난해 이곳에서 동안을 거닐었다는 정돌씨(57·서울 상계5동)에게 질문했다. "불식선원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사랑방 같아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스님이 답여주시는 차 한 잔과 함께 법문을 들죠. 불자들이 부담 없이 자기 공부 경계를 드러내면, 스님은 근기에 맞게 차근차근 길을 알려주실죠. 동네 아저씨처럼 말이예요."
지대방에서 본적 스님과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차담을 나눴다. 수행상담은 기본. 구수한 옛날 얘기, 요점박듯하게 하는 재담까지, 어느 집 사랑방에서 오갈 법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진과 문답은 치열하게

차담이 끝나자 20여 불자들은 곧장 가부좌를 틀었다. 치열함이 선방을 가득 메웠다. '30분 참선-10분 포행',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정진은 빈틈없이 진행됐다. 자정을 넘으면서 본적 스님의 간화선 참구법에 대한 법문이 이어졌다.
"팔만사천법문은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로 이끄는 안내서입니다. 병을 고치는 처방전인 거죠. 하지만 처방전은 병을 본질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약을 직접 먹어야겠죠. 화두가 바로 약입니다. 그럼 화두란 무엇일까요?"
침묵이 흘렀다.
"화두는 토끼 뽕에 털난 소식입니다. 화두는 말과 생각의 길을 끊어지게 합니다. 객 밖의 도리를 참구하는 격외구법(外句法)이요. 입어는 의식 그대로 참구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문답도 계속 됐다. 3개월째 선원에서



불식선원장 본적 스님



20여 불자들이 11월5일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숨을 목전(目前)에 놓고 바로 보는 것이 참선공부임을 잊지 마세요."

참선서 살 성찰하는 힘 얻어

불자들은 참선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참호보 불자' 리는 성운선(38

하게 성찰하게 하는 힘을 참선수행에서 얻게 된 거죠."

'입 열면 모든것 거짓' 알아야

본적 스님은 1997년 불식선원의 문을 연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행자에게 가장 큰 맹통(盲通)은 아는 체 하는 '알음알이(識心)'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알음알이를 두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선원 문지방을 넘으라고 늘 말합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참선수행의 눈이 열리기에 그렇죠. 그래서 선원의 이름도 불식(不識)이라 지은 겁니다."

때문에 불식선원에서는 자율정진과 차담을 통한 답선(答禪) 시간을 강조한다. 매일 새벽 4시~6시 참선정진, 10시 30분~11시 30분 <금강경> 독송, 오후 2시~4시 참선정진 등으로 나뉘어 자율적으로 수행을 한다.

선원에서는 특히 초심자의 근기에 맞게 지대방에서 수행상담을 한다. 매일 오후 2~4시 지대방에서 본적 스님은 차담을 통해 참선 초보자들의 근기에 따라 질, 열별 등의 수행법을 권유한다. 화두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참구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다.

또 참선정진과 더불어 <원각경><금강경> 등의 경전 강의로 사시불공 전에 <금강경> 1품씩을 반드시 독송하게 해, 불자들의 신심을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031)655-7121

글·사진/안성=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3> 누더기 옷과 이불

삼의일발(三衣一鉢). 승가의 무소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삼의는 세 벌이 아니라 속옷과 겹옷 그리고 가사를 포함해 한 세트를 말한다. 따라서 말만 삼의(三衣)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벌인 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수행자의 검소정진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 옷이란 것도 시체를 썼던 것이나 버려진 천을 주워서 기워 입었다는 본소의(糞掃衣)였다. 선종시대에 오면 남의(衲衣)로 표현이 바뀐다. '남'도 기워다는 뜻이다. 남의도 세상사람들이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여러 가지 낡은 천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을 말한다. 그래서 누더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 구담(懼曇·고타마) 선사의 '훈령' 보다도 한 술 더 뜬 경우가 있었다.

형악곡천(衡嶽谷天) 선사의 별명은 '지의 도자(緇衣道者)'이다. '종이옷을 입은 도인'이란 뜻이다. 종이 옷은 헝겊 옷보다도

문지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 천성이 고고하고 검소하여 종이이불 한 장으로 지냈는데 말쑥한 곳은 찾을 데야 찾을 수가 없었다. 주우나 더우나 다른 이불로 바꾼 적도 없었다. 보다 못한 시자가 선사 몰래 명주 이불로 바꾸어 놓았다. 선사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불러 꾸짖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단 한번도 비단옷을 입은 적이 없다. 더구나 나와 30년을 함께 지내온 이 종이이불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일본의 다푼양(澤庵 1573~1645)선사 역시 옷이란 몸에 걸치고 있는 승복 한 벌이 전부였다. 하루는 도반과 신도집을 방문하여 축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시간이 되어 도반이 도착했으나 방문을 닫은 채로 일

굴조차 내밀지 않고 "먼저 가라"고 하였다. 그 도반은 투덜거리면서 혼자 떠났다.

사실은 신도집 방문을 위해 전날 저녁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세탁하였다. 그런데



분소의는 무소유 상징...종이옷 입은 경우도 단벌 승복 세탁할 땐 바깥 출입 못하고 좌선

더 험련없는 옷으로, 그 종이옷으로 몸을 가렸다는 의미이다.

그는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 선사의 법을 이은 후 행산에 은거하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때론 얼굴로 지내면서 반쯤은 실상한 차림으로 종이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이런 계승을 흥얼거리고 다녔다.

"미친 승려가 쉼터 갖지 않는 종이적삼을 입고서 한 철을 넘기지 않는 것일 뿐. 누에치는 고생에 애쓰는 단월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런 너절한 행색으로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시냇물 받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옷 잘 입었다고 도둑까지 놓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동산(洞山)에서 오는 날 허름한 그의 모습을 보고서 탐장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옷 속의 일인가?"
"옷 하나 겨우 몸에 걸치면 민사(民事)가 모두 여여 합니다."

곡천 선사 못지않은 서산 랑희산(亮希山) 선사는 종이이불을 덮고 살았다. 노숙자의 신

마침 날씨가 나빠 옷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처럼도 방에서 좌선을 하며 옷 마르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같이 가고 싶어도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고 방문마저 열 수 없었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끔 젊은 직장인 청신녀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스님들은 참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고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 요즘은 분소의나 남의의 수준은 아니지만 모두 회색조이니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입으면 된다.

하긴 뉴스나 일기예보 하는 여성방송인 들을 보면 매일 옷을 바꿔 입고 화면에 등장한다. 저 정도쯤 되면 "오늘은 어떤 옷으로 나가자?"하는 것도 화두일 것 같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도 후원자와 팔라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했다. 괜한 기우(杞憂)였다.

"옷 하나 겨우 몸에 걸치면 민사(民事)가 모두 여여 합니다."

곡천 선사 못지않은 서산 랑희산(亮希山) 선사는 종이이불을 덮고 살았다. 노숙자의 신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권해균
전환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무료 공개 강좌

하루 1시간만 투자 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성되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기 간: 2005.11월 (한달간 무료)
■ 장 소: 보명선원 (종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 전 화: (02)2273-8484
핸드폰 011-785-8813
■ 시 간: 저녁 7:00 ~ 9:00
■ 준비물: 고무줄바지 (츄리닝)

!매주 토요일 오후 4~6시 각성큰스님 대승가신론 유식론강의

대덕로
1호선 5번출구
종로3가
동대문
정계천
보명선원 5층

간(肝) 이 :
간 지방간
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결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갈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향이러에 넣고 원저 97마리를 덮은 뒤 원저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저가 다 터들어 가다가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룩내용 ■
중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유채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남편과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라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지지를 결례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수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방법 ▶ 띠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날짜로 손(掌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전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하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히규)
동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강생할 하시든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